비싼 대입 전형료 허리 휜다

대부분 10만원, 수시 6회 지원땐 60여만원 소요

지난해 181개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2천억 달해

대학별 수시모집이 진행중인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에 원서를 쓰는 수험생 1인당 전형료가 최고 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1일 수도권 주요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면접·실기시험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대부분 10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은 평균 6만5000원~7만원 선이다.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언더우드 학부 트랙은 무려 14만5000원이었고, 실기가 포함된 예·체능 계열도 12만원이었다. 고려대 OKU미래인재 전형은 12만원, 특별전형 국제·과학·체육부문은 전형료가 11만원이었다. 경희대 일부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10만원이다. 이는 서울대 등 국·공립대학 일반전형 평균 6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조선대 일반전형의 경우 4만원이고, 일반전형에 실기나 면접중 한 분야가 추가되면 6만원, 실기·면접을 모두 실시하는 예·체능계열은 8만원, 입학사정관 전형은 7만5000원이다. 전남대는 일반 전형의 경우 4만9000원, 예·체능계 7만원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전형료가 평균적으로 수도권보다 35%정도 저렴하지만 수험생이 몰리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일부 전형이 8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대부분 수험생이 수시 원서를 최다 6장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전형료만도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수시 전형료 등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의 또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전형료를 포함해 면접,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을 오가는 데 써야할 교통비·숙박비를 통틀어 적잖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김모(55)씨는 "합격 가능성과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들이 수시원서 6장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료가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도권에서 숙식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일반대 181곳의 2012년학년도 입학전형료 총 수입은 1962억원으로 전년(1906억원) 대비 2.9%(56억원) 늘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능 원서접수 시작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마련된 원서 접수처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수능 원서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까지 많은 비

남해안 120㎜ 이상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다. 이번 비는 오는 24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오후 6시 현재 내린 비는 여수 여천 141.5㎜를 최고로 순천 121㎜, 광양 백운산 103㎜, 광주 첨단 69.5㎜, 보성 66㎜, 구례 61.5㎜, 담양 38㎜ 광주 31㎜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여수 지방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번 비는 2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30~80㎜, 남해안에 120㎜ 이상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25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습도가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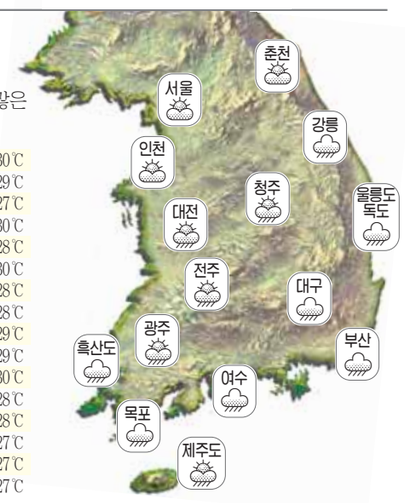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8분 해짐 19시 11분 달뜸 11시 48분 달짐 22시 28분

비 피해 주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가끔비	23/30℃
목 포	비	23/29℃
여 수	비	24/27℃
나 주	흐리고가끔비	24/30℃
완 도	비	25/28℃
구 례	흐리고가끔비	24/30℃
강 진	비	25/28℃
해 남	비	25/28℃
장 흥	비	25/29℃
순 천	비	23/29℃
영 광	흐리고가끔비	23/30℃
진 도	흐리고가끔비	24/28℃
전 주	흐리고가끔비	22/28℃
군 산	흐리고가끔비	21/27℃
남 원	흐리고가끔비	23/27℃
흑산도	비	23/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2.0~3.0m

	밀물	썰물
목포	05:44 18:26	10:54 23:25
여수	00:14 12:52	06:15 18: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날 씨						
최저/최고	24/28	24/31	24/33	24/32	25/31	25/30

고3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광주교육청 "타지역 학생들과 형평성 고려"

교과부 대응 주목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3학년 학생에 한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는 것에 대해 최종 논의를 거쳐 고 3에 한해 기록하되, 고 1,2, 초·중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제시, 훈령을 통해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에서 학생부 기재대상인 고 3 수험생은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력가해 학생으로 서면사과, 교내외 봉사 등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를 보류했었다. 그러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 3학생들의 경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타지역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교과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결정은 교과부의 방침과는 정반대여서 향후 교과부 대응이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교과부 방침을 거부해 교과부의 특별감사 대상이 된 전북도교육청처럼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또 '말뚝테러'…경찰 용의자 파악 나서

동북아역사재단 등 2곳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동북아역사재단 건물 입구에서 말뚝과 전단 등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월 소녀상 '말뚝 테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는 이날 블로그에 이 말뚝과 전단을 부착했음을 알리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 이번 말뚝테러도 자신이 주도했음을 밝혔다.

22일 서울 마포·서대문경찰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마포구 망원동 동북아역사재단 입구에서 나무 말뚝 3개와 전단 한장이 발견됐다.

길이 45cm에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나무 말뚝에는 '타캐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 있었으며 박물관 입구와 후문,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치한 인광빌딩 정문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물관 인근 CCTV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20대와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 완도에 적조 상황실 운영

전남도 등 13억 추가 지원

전남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완도에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국방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완도군과 경남 통영군 현지에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장 주변 연안의 적조 방제 작업은 시·군 등 지자체가 전담하고, 해군과 해경은 외해를 맡는다. 또 농식품부는 적조 제거 예산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예산 13억원을 추가 확보해 전남도와 경남도에 지원했다.

한편 여수시와 고흥군에서는 돌돔, 넙치 등 양식어류 54만마리가 폐사해 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2 '복수담임제' 학교 자율로 바뀐다

교과부, 시행 한학기만에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이번 학기부터 자율 운영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에 중학교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 자율 운영하라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도 각급학교에 이런 방침을 전달,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를 2명 두도록 하는 '복수담임제 운영세부지침'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남구 통일축전

25일 푸른길 공원 광장

광주시 남구는 8·15 통일축전 남구지역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7시 남구 푸른길 공원 광장에서 광복절 67주년 기념 남구 통일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타악그룹 얼쑤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그날이 오면' 영상상영, 태껸 시연,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오카리나 합주,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기획전시 및 서명운동, 먹을거리, 책 전시회, 통일그림 그리기 대회, 통일영화제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50-725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